

전북도, 소규모 창업자 집중 육성

청년창업자 양성·행복창업가 '비비GO' 과정... 벤처창업과 생계·서비스형 창업 장점 결합

창의적 아이디어나 열정이 있는 청년, 빛나는 작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는 4050행복창업가, 이들이 뭉쳐 작은 창업의 반란을 준비한다.

전북도는 아이디어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작은 창업자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작은 창업은 벤처창업과 생계·서비스형 창업의 장점을 결합한 중간영역의 소규모 창업으로 전북도가 올해부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과 함께 중점 육성하는 창업모델이다.

13일 청년 대상의 청년창업자 양성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작은 창업가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총 4단계로 창업기초 교육 V(비타민), 아이템별 전문화 교육 S(전문가), 컨설팅과 성장지원 M(매니저), 사후관리 S(디딤돌) 과정이다.

4월부터 시작될 4050중장년층 대상인 행복창업가 '비비GO(備飛高)' 과정은 총 3단계로 창업기초교육인 비(備)과정, 아이템별 전문화교육 비(飛)과정,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인 고(高)과정이다.

지원 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하는 이

유는 선형적이고 분별없는 창업지원을 방지하고,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선별해 창업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하기 위함이다.

창업자금 지원으로 창업 기초교육을 수료생에게 최고 2,000만원, 전문과정 수료생에 최고 5,000만원의 특례보증과 2%의 이자를 보전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40세 이하는 청년창업자 교육과정을, 40세 이상은 행복창업가 비비GO과정을 지원하면 된다.

도는 이번 작은 창업자 육성과정을 통해 그동안 기관 간 분절적으로 운

영되던 창업지원 시스템을 하나로 연계해 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예비창업자 관리를 통해 성공창업자를 육성한다.

도 관계자는 "소자본 생계형 창업자의 절반이 2년내에 폐업을 하고 있다"면서, "준비교육을 철저히 시켜 경쟁력 있는 작은 창업가로 집중 육성해 폐업을 줄여 성공창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 산배창업자와 예비창업자의 교류창구인 네트워크 데이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잼버리 유치단, '아프리카 스카우트 데이' 서 홍보

2023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해 잼버리 유치단 일행이 아프리카를 품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진흥 정무부지사,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국장, 한국연맹 김형균 부국제미셔너 등 잼버리 유치단 일행은 7일부터 11일까지 탄자니아에서 열린 '아프리카 스카우트 데이'에 참여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집중 유치 활동을 펼쳤다.

유치단은 아프리카 대륙 회원국 38개 나라가 참석하는 '아프리카 스카우트 데이' 참석을 위해 지난 6일 탄자니아 칼리만자로에 도착했다.

유치단은 탄자니아에 도착하자마자 대한민국 홍보부스에서 아프리카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새만금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주요 핵심멤버를 대상으로 맨투맨 홍보에 주력했으며 행사 사무국을 방문해 주요 참여 인사의 동정 파악에 나서는 한편 행사장내 마련된 전북도 홍보 부스 운영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유치단은 우리나라 홍보부스에 호기심을 갖고 찾아온 아프리카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일일이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의 매력을 소개하는 등 맨투맨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잼버리 유치를 위한 중요지역인 아프리카를 품고 새만금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밤 10시 이후까지 계속되는 일정 내내 '새로운 문명이 펼쳐질 죽음의 땅 새만금'에서 2023년 잼버리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참가 회원국 스카우트 대원들과 어울리며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2023세계잼버리 개최지는 오는 8월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장인 아제르바이잔에서 결정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 친환경쌀, 제주도 학교급식 50% 공급

전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간 친환경농산물 상호구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이번 새 학기부터 도내 친환경쌀 800톤이 제주도 학교급식으로 공급된다.

이는 제주도 학교급식 소요량 1,600톤 중 50%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도와 제주도는 지난 2월 친환경농산물 상호교환구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도는 화산섬의 특성상 쌀 생산이 되지 않고 감귤 생산이 많아 전복도에서 생산되는 제주도에 쌀을 공급하고 제주산 감귤 등을 구입함으로써 상호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난 2월 체결한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약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로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의 상호 교환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 정부 간 비전을 공유해 농업분야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제주도 버 재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고무화분을 이용한 논을 조성해 벼의 생육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학교 논 만들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팔방미인 다누리콜센터, 도정 현안 활약 돋보여

전북전주센터, 이주여성 인권지킴이 역할... 국제행사·외국인근로자 통번역 지원 등 돋보여

다누리콜센터 전북전주센터가 도정 현안에 팔방미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다누리콜센터는 초기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언어·문화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 정보 안내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국제결혼 피해자에 대한 종합 상담 서비스 지원기관이다.

특히,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 대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의료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3개국 언어가 지원되고 있다.

전주센터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출신국가 언어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이주여성 상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000여건의 전화, 면접, 방문,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누리콜센터는 이처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도정 현안인 국제행사 통번역 지원, 외국인근로자



다누리콜센터 전북전주센터가 도정 현안에 팔방미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통번역 지원 등 다(多)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내 AI 살처분에 투입된 외국인근로자 140여명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이상 유무를 해당국가 언어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살처분에 투입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체크 및 사후관리에 크게 기여해

민·관 협업의 모범사례로 타시도에 소개됐다.

또한,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국제회의), 세계잼버리 유치활동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통역요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다누리콜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제행사 특역 지원 등으로 도정 현안을 적극 지원해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우제류 축사 청소·소독 실시

전북도는 구제역 발생 후 전국이동제한 해제 후인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조기 근절을 위해 우제류 사육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축사 대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정리정돈 청소를 하고 충분한 소독을 실시하며, 아울러 허약한 사육가축의 조기 도태도 병행한다.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 참여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 홍보를 하고, 농협은 공동방제단 및 자체소독차량으로 취약농가 소독을 지원하며 계열업체에서는 위탁농장에 대한 소독과 대청소를 지도한다.

또한 도축장, 사료공장은 일제소독의 날 15일과 17일에 대청소와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청,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새만금개발청은 해빙기 안전 사고와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 새만금 지역 내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새만금 지역 내 도로, 산업단지 매립 공사 현장, 가스 공급 기지 등 6개 현장이다.

공사장 주변의 지반 침하 여부와 매립 공사 시공의 적정성, 건설 사고 발생에 취약한 해상 준설선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 관리 우수 사례는 다른 현장과 공유하고, 부실 시공이나 안전 우려 현장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